

해경 목포 서부정비창 총사업비 증액...사업 추진 탄력

377억 증액...해경 유일 대형함정 수리시설 등 11월 착공
서남권 조선업 발전 기폭제·해양 경비 효율성 향상 기대

총사업비 부족으로 공사 발주를 미뤘던 해경 서부정비창이 이달 초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17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증액 심의에서 해경 서부정비창 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1994억원에서 377억 증액된 2371억으로 증액됐다.

해경은 서부정비창 신설을 위해 지난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 9월 기본설계를 마쳤고, 올해 5월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불가 상승과 전라환경영향평가 및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기존 사업비 1994억원에서 412억원을 증액한 2406억원을 기재부에 요청했

고, 기재부 심의 기간 단축과 예산 원안 증액을 위해 목포시와 김원이 국회의원, 해양경찰청, 전라남도 등의 노력으로 총사업비는 당초보다 377억원이 증액된 2371억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목포 신항만 허사도 일원(10만9000㎡)에 들어설 서부정비창은 항만시설, 상가(上架) 시설, 건축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항만시설은 잔교식 안벽 1선식(180m)과 의장 안벽 205m가 조성되며, 함정을 들어올려 수리하는 육상 시설인 상가시설은 5천t급 플로팅도크와 700t급 슬리프트가 각각 1기씩 설치된다. 건축시설은 본관과 수리공장 등으로 함정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 등을 생산·사용하는 수리공장에는 기공공장, 전기공장, 의장공장 등이 들어선다.



목포 신항만 허사도 일원에 들어서는 서부정비창 조감도.

총사업비 증액 확정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게 된 서부정비창은 기재부 세목 정정후 6월 실시설계와 시공을 통합(턴키) 발주될 예정이며, 오는 11월 착공해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서부정비창 시설은 현대삼호중공업(대형조선사)과 대한조선(중형조선사) 등 2곳에서 물량을

받아 블록 등을 생산하는 기자재 업체(75%, 210여개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남 서남권 조선업의 발전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서부정비창은 전남 서남권 조선업체에 연간 500여억원에 달하는 외주 용역 및 조선기자재 물량을 공급할 것으로 보여 인구와 예산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양 경비의 효율성도 향상된다.

현재 함정을 수리하는 해경 소속 정비창은 부산정비창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전국에 있는 5개 해경(중부청·서해청·남해청·동해청·제주청) 소속 함정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부산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중소형함정에 한해 대형 함정은 해군 소속의 진해정비창에서 수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서부정비창이 들어서면 중부청·서부청·제주청 함정은 부산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대형함정도 해경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서부정비창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목표연도인 2024년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 전남도, 해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행정지원, 기업유치, 지역기업 우선 발주 등 상생협력의 결속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준공 이전까지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진행사항 공유,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 27일 조선, 기자재 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해경 서부정비창 사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서부정비창은 서남권 조선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면서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목포의 미래 먹거리 마련을 전환경선박, 해양레저, 수리조선 등을 중점 육성해가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천사섬’ 명성 어디가나...신안 ‘가고 싶은 섬’ 최다

‘걷기 좋은’ 소악도·‘체험의 섬’ 임자도 등 6곳 선정

신안군의 섬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2021년 찾아가고 싶은 33섬’ 중 전국 최다로 선정되면서 천혜의 천사섬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17일 신안군에 따르면 올해 선정된 2곳과 지난해 4곳을 포함해 모두 6곳의 섬이 선정됐다. 통영이 5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6곳의 섬 중 걷기 좋은 섬은 기점·소악도

(12사도 순례길), 반월·박지도(퍼플교, 라벤더공원) 2곳, 사진 찍기 좋은 섬은 자은도(무한의다리, 1004섬 뮤지엄파크), 병풍도(맨드라미정원) 2곳, 체험의 섬은 임자도(툴립공원, 대광해수욕장·해변승마체험), 중도(갯벌체험) 2곳이 선정됐다.

걷기 좋은 섬 기점·소악도는 밀물 때면 섬과 섬을 잇는 노둑길이 잡겨 5개의 섬으로 변하며,

12사도 예배당 순례길로 한국의 산티아고라고 불리는 섬이다.

반월·박지도는 보랏빛 향기가 피어나는 섬으로 라벤더 향기를 맡으며 아름다운 해안 산책로를 걷는 색다른 경험을 안겨 주는 곳이다.

사진 찍기 좋은 섬 자은도는 겨울해양스포츠 최적지로 치유와 휴양의 섬이다.

체험의 섬 임자도는 전국에서 가장 긴 12km의 백사장의 대광해수욕장 자리하고 있으며 매년 7월께에는 민어축제, 4월에는 4만 3000평의 광활한 대지에서 50종, 600만 송이의 꽃의 향연이 펼쳐지는 톨립축제가 열린다.

중도는 아시아 최초 솔로시티로 지정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섬으로, 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청정갯벌을 볼 수 있다.

또 2021년 찾아가고 싶은 33섬 중 반월·박지도의 퍼플교는 ‘8월 낭만 가득 섬 여행’으로, 기점·소악도 12사도 순례길은 ‘11월 가을바람 따라 산책 여행’으로 전라남도 2021년 하반기 이달의 관광지에도 선정됐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군, 한시생계지원금 추가 확보...이달말 지급

가구당 50만원씩

해남군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으나 타 부처 지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정부 4차 한시생계지원사업에 국비 13억 3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해남군의 한시생계지원금 접수 결과 7918가구가 신청해 전남 최다를 기록했다.

군은 전남도에 국비 추가지원을 적극 건의해 애초보다 13억 3000만원 증액된 최종 21억8000만원으로 확정됐다.

해남군에서는 한시생계지원금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난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대상자를 읍면별로 분류했다.

문자 발송과 마을이장 등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신청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

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해남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도도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군민 홍보 등 적극행정을 통해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6월 말 지급 예정이다.

소득재산과 중복지원 여부를 심사해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50만원, 소규모 농어업인인 배우처(30만원) 대상자의 경우 차액 20만원을 지급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무안 양파, 파리바게뜨서 만난다

군-SPC그룹, 소비촉진 협약...8월까지 신제품 판매

무안군이 지난 15일 종합식품기업인 SPC그룹과 무안양파 소비촉진을 위한 행복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SPC그룹은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SPC삼립 등 업계를 선도하는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로 미국, 중국 등 해외 6개국에 진출한 국내 대표 종합식품기업이다.

SPC그룹에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3개월 간 전국 3400개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무안 양파를 원료로 한 신제품을 판매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에서는 품질이 우수한 무안양파로 만든 신제품 출시로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 양파농가는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협약은 게르마늄이 풍부한 무안 황토에서 생산되어 맛과 품질이 뛰어난 무안 양파가 소비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계



기가 됐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들을 돕기 위해 대규모의 양파구매 계약을 체결해주신 SPC그룹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목포해수청, 민간항만 보안 강화

CCTV 연계 구축사업 시행

목포해수청이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목포항 주요 민간항만과의 CCTV 연계 구축사업’을 시행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수)은 오는 8월말 사업 완공을 목표로 기존에 연계되지 않은 현대삼호조선과 대불·우송조선 등 민간항만부두 2개소와 국유부두인 완도항 제3부두의 CCTV를 목포항 종합상황실과 연계해 보다 강화된 보안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CCTV 종합감시시스템이 연계 구축되면 각 부

두뿐만 아니라 목포항 종합상황실에서 이중 실시간으로 부두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보안사고 등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목포해수청은 목포항 부두별 항만시설 보안책임자를 대상으로 보안사고 예방 특별교육도 실시했다.

김현성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보안사각지대를 최소화해 항만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 매매대상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곤충사육장 + 태양광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